

부조리한 사회 치유하는 백신같은 미의식



미술로 보는 한국의 미의식 - 해학

최광진 지음

“해학은 이처럼 부조리하고 불행한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백신과도 같은 미의식이다. 해학이 있는 사람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존귀함을 신뢰한다. 그러면 남과 비교해서 생기는 상대적 열등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감만으로도 본성에 나오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본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희극은 보통 이하의 악인을 모방하고, 비극은 보통 이상의 선인을 모방한다”고 전제했다. 희극 주인공인 악인은 대체로 지위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들의 행위는 웃음 거리를 제공하는데 이때의 웃음은 일종의

비웃음이다.

이와 달리 해학적 웃음은 자족적인 특징을 지닌다. ‘웃음의 동기가 자신의 본성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희극적 웃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사전적 의미의 해학(諧謔)은 “세상사나 인간의 결함에 대한 익살스럽고 우스꽝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뜻한다. 비웃음이 아닌 품위가 깃든 자연스러운 웃음인 것이다.

한국인의 해학을 미의식으로 조명한 책이 발견됐다. 최광진 홍익대 초빙교수가 펴낸 ‘미술로 보는 한국의 미의식 2- 해학’은 180여 점의 미술작품으로 만나는 한국인의 해학을 담고 있다. 책은 ‘미술로 보는 한국의 미의식’ 시리즈 두 번째 기획으로 1권 ‘신명’에 이어 ‘해학’을 조명한다.

저자는 해학의 근원적 뿌리를 한국인의 친화적 풍류정신에서 찾는다. ‘풍류는 나와 남을 분리해 고립시키지 않고 타자와 소통하며 친근하게 어우러지는 것’을 뜻한다. 최치원은 ‘난랑비서’에서 풍류를 못 생명과 어우러지는 ‘접화군생(接化群生)’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만물평등사상과 낙천적인 정서가 투영돼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해학(諧謔)을 들여다 보면 ‘해(諧)’는 ‘화합하다’는 뜻이, ‘학(謔)’



(諧)는 ‘희롱하다’는 의미가 깃들여 있다. 부조리한 권력에 희롱을 하면서도 공동체 화합을 위해 선 포용한다는 뜻이다.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귀면 귀와 장승, 사천왕상 같은 민속신앙에 드러난 해학을 조명한다. 나주 운흥사지의 ‘상원주장군’과 ‘하원당장군’은 보는 이에게 자연스러운 웃음을 유발한다. 전자는 등근 눈망울, 큰 코, 드러난 이빨이 무섭다기보다 인상 좋은 할아버지 얼굴을 떠올리게 한다. 후자는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데다 잔뜩 목을 움츠리고 있어 절로 웃음을 짓게 한다. 저자는 “초월적인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본성과 후머니즘을 떠올리게 한다”고 평한다.

2장은 조선의 풍속에서 길어올린 해학이 주제다. 저자는 윤두서의 ‘휴식’을 주목하면서 선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농민을 그린 의도를 분석한다. 아름다운 산수를 배경으로 작업복 차림으로 앉아 있는 농민의 모습이 이채롭다. 고답적인 산수화의

전통에서 농민을 주인공으로 세운 것 자체가 파격적이다. 작품은 당시 흔들리는 봉건질서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3장은 민화로 승화된 낭만적 해학에 초점을 뒀다. 민화의 해학은 ‘민성의 자유로운 유희본능’과 연관돼 있다. 19세기 후반의 ‘까치호랑이’를 보고 있으면 호랑이에 대한 선입관이 무너진다. 호랑이는 무섭다기보다 귀여운 모습이다. 까치의 놀림에 화가 났는지 털이 쭈뼛하게 선 모습은 동물의 왕이라기보다는 혀를 날름거리는 애완동물의 이미지다.

마지막 장은 현대미술에 계승된 해학의 미학을 조명한다. 저자는 이종성, 장욱진, 이철중, 주재환, 최종화의 작품을 주목하며 유쾌한 웃음의 기저를 들여다본다. 최종화의 ‘청소하는 꽃’은 청소도구를 화분에 핀 꽃으로 표현했다. “미와 추의 이분법적 차별을 무너뜨리고 하찮은 존재를 존귀하게 만들고자 한다”는 점은 다분히 해학적이다.

저자는 맺음말에서 ‘사회에 내던져진 우리는 부조리한 현실을 알면서도 사회를 등질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면 안으로 끌어안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술문화·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세종 소장 ‘까치호랑이’, 19세기 후반 민화. 까치의 놀림이 지나쳤는지 호랑이가 잔뜩 털이 올라서 마치 전7에 감전된 것처럼 털이 쭈뼛하게 서 있다. <미술문화 제공>

향구의 사랑

김세희 지음



목포 출신 김세희 작가가 첫 장편소설 ‘향구의 사랑’을 펴냈다.

전작 ‘가만히 나를’에서 사회초년생들이 통과하는 인생의 ‘첫’ 순간을 섬세하게 그려 사랑을 받았던 작가는 신작 ‘향구의 사랑’에서 또 한 번 잊을 수 없는 첫 번째 순간을 선보인다.

소설은 사랑의 한복판에 있었기에 알 수 없었고 또한 몰랐기에 더 열렬했던 10대 시절의 첫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 서사의 배경은 2000년대 초 향구도시 목포, 과연 그 시절 그곳 여학생들을 사로잡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칼머리를 유행시켰다. 아이들이 있었기에 팬픽이 있었다. 아이들 그룹의 A군과 B군이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지어내고 읽으며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닌 모든 색수열한 정보들을 배웠다.

아이들 가수를 주인공으로 남X남 커플을 등장시켜 소설을 창작하는 팬픽 문화는 10대 여자아이들을 사로잡았다. 아울러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동성을 사랑하는 문화가 거세게 번지던 2000년대 초반의 현상을 연구한 논문, 저서가 등장하고 그 현상을 ‘팬픽 이반’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소설은 그 시절 목포에서 주인공 ‘나’에게 가장 영향을 줬던 세 여자와의 일들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칼머리를 하고 합참바지를 입고 ‘남자처럼’ 건들거리는 어린 시절 친구 ‘인희’, ‘나’가 단 한 번 사랑했던 여자 ‘민선 선배’ 그리고 친구 ‘규인’이 서사의 인물로 등장한다.

<민음사·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봄이고 침이고 덤입니다

정끝별 지음



시와 평론을 쓰는 정끝별 작가가 ‘봄은 침이고 덤입니다’를 펴냈다. 1988년 ‘문학사상’을 통해 등단했던 시력 31년째에 선보이는 여섯 번째 시집이다.

작품집은 모두 4부로 나뉘어 있다. 이번 시집을 읽는 데 있어 두 개의 힌트가 있는데 하나는 라임과 애너그램(철자를 바꾼 어구)이다.

“하나의 소설점을 향해 일사불란 항진하는 시의 원근법이 지부진 오리무중일 때 라임(rhyme, 압운)과 애너그램(ana-gram, 철자 바꾸기)이 찾아왔다. 하나의 언어를 감싸고 있던 다른 소리와 의미와 몸짓이 들썩였다. 들썩이는 춤과 노래가 떨어졌다. 물음이 답을 품고 답에 날개가 돋는, 우리의 우연과 그 병존의 공존을 위하여”

모두 4부로 구성된 시집 속 시들은 시인이 자주 다뤘던 일상의 문제, 가족이라는 문제 그리고 여성과 엄마라는 문제를 깔고 있다. 그럼에도 속도감 있는 문체로 읽어 나가게 하는 시들은 “춤만 같은 삶의 몸부림이나 인간됨” 등으로 다가온다.

문학평론가인 조강석은 ‘발란사(balanza)의 춤’에서 “춤기 위해 말하고 말하기 위해 춤춘다. 그러니까 그려야 하고 그려야 그려야 한다. 정신과 형태, 당위와 인과, 요청과 기결, 광년과 청년, 그림 그리는 아이와 절망을 머루는 엄마, 영원 속으로 떠밀림과 이미 함께 다니는 영원, 천들의 비밀과 관음의 환함이 천정 언어에 모두 함께 걸려 뛰놀고 있다. 봄 사태다”고 평한다.

<문학동네·1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년 100권 독서법

차석호 지음



바쁜 일상을 핑계로 책을 사 놓고도 통 읽지를 못하는 현대인들. 독서가 즐겁고 의미 있으며 꼭 필요한 일이라면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책 읽는 습관’을 들이는 건 쉽지 않다.

독서를 결심한 이들을 위해 인문학 강사 차석호가 책 읽는 습관을 만드는 행동 지침을 담은 책 ‘1년 100권 독서법’

을 펴냈다.

“4차산업혁명시대엔 창의력이 곧 생존이고, 이는 책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조금씩 꾸준히 읽으면 어느 순간 독서 내공이 폭발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책을 통해 삶의 고비를 딛고 일어난 이야기와 함께 1년에 100권을 읽겠다는 각오로 도전하는 치열한 독서, 이른바 ‘파워 독서’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책은 ‘모든 책을 정독할 필요는 없다’, ‘취향에 맞는 독서 계획표를 작성하라’, ‘멘토를 통해 독서 슬럼프를 넘어라’ 등 저자 본인만의 독서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또 30일 동안 10권 읽기, 100일동안 33권 읽기, 1년 100권 읽기를 5년간 지속하기 등 각 단계에 알맞은 독서법을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인문학 전문교육기관 ‘애플인문학당’ 등지에서 강의 중인 저자는, 독서토론편 ‘Reading 부산’, 팟캐스트 ‘듣도 보도 못한 인문학’ 등을 운영 중이다.

<라운북·1만38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나는 아무개지만...

김한승 지음



우리는 왜 이 우주에 존재할까. 인류가 늘 궁금해 했던 이 질문은 오늘날 광활한 우주에 대한 발견이 깊어지며 더욱 중요해졌다. 천체물리학자 브랜던 카터는 그 답변으로 ‘인류 원리’라는 철학 개념을 제시했다. “어떤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 경험자는 경험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게 그 기본 원칙이다.

국민대 김한승 교수가 ‘인류 원리’를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 철학적으로 소개하는 책 ‘나는 아무개지만 그렇다고 아무나는 아니다’를 출간했다.

저자는 인류 원리를 “우리 모두 각자 평범하게 비범하다”는 말로 풀어낸다. 인류 모두가 각자 비범한 이념이나, 이 점이 특별히 놀랄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저자는 이 개념이 이분법을 거부하고 확률적 사고방식을 따르며, 특별한 의미를 기대하기 힘든 현상에서도 의미를 파헤치고 적용 대상을 창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책은 10개 장에 걸쳐 ‘나’의 의미부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 나아가 인간 기원과 미래까지 소개한다. 1장에서 인류가 가지는 ‘편향성’을 통해 인류 원리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고, 2-3장에서 인류 원리를 둘러싼 정의-해석 등을 살펴본다. 4장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탐구이며, 5-7장은 타인을 받아들이거나 오해하게 되는 이유로 채웠다. 8장에서는 인류 원리를 적용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9-10장에서 인류의 기원과 미래를 탐구한다.

<추수밭·1만7000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사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 기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